

공보다 빠른 ‘노치로’

〈노수광+이치로〉



번트안타·내야안타·도루
빠른 발로 폭풍 질주
한 베이스 더가며 수비 교란
“후회 없이 하고 가겠다”
KIA 이틀 연속 롯데 대파
시즌 첫 워닝 시리즈

KIA 외야수 노수광이 ‘스피드’로 팀의 첫 워닝 시리즈를 이끌었다.

KIA 타이거즈가 24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11-4 대승을 거뒀다. 1승1패에서 롯데와 세 번째 대결을 벌였던 KIA는 이날 승리로 시즌 첫 워닝 시리즈를 신고했다.

노수광이 동료들이 이치로(마이애미 말린스)에 빗대 지어준 ‘노치로’라는 애칭에 어울리는 폭풍 질주로 승리를 불렀다. 1회부터 ‘발’로 롯데 선발 린드블럼을 흔들었다.

KIA 선두타자 신종길이 3루수 송구 실책으로 2루 진루에 성공했다. 2번 타자 노수광이 투수 옆 기습 번트로 내야안타를 만들었고, 무사 1·3루가 됐다. 김주찬의 2루수 앞 땅볼 때 3루에 있던 신종길이 홈을 밟으면서 1-0. 나지완이 불넷을 골라내면서 1사 1·2루의 기회가 이어졌다.

여기에서 린드블럼을 흔들는 도루가 나왔다. 5번 이범호의 타석 때 노수광이 빠르게 3루로 내달렸고 나지완도 2루에 안착하면서 더블스틸이 기록됐다. 이어 이범호가 린드블럼의 146km 투심 패스트볼을 견어올려 중앙 담장을 넘겼다. 순식간에 4-0이 됐다.

2회에도 노수광의 활약이 있었다. 2사에서 신종길의 솔로포가 터지면서 5-0. 노수광이 이번에는 2루수 쪽으로 깊게 공을 보낸 뒤 순식간에 1루 베이스를 지나치면서 내야안타 두 개로 멀티히트에 성공했다. 기세를 이어 멀티 도루를 만든 노수광은



24일 오후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KIA 타이거즈의 3차전 경기. 2회초 2사 1루 KIA 김주찬의 타석때 1루주자 노수광이 도루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중견수 키 넘기는 김주찬의 2루타로 홈을 밟으며 두 번째 득점까지 올렸다.

공격의 포문을 열었던 노수광이 승부에 췌기를 베풀었다. 6-1로 앞선 4회 초 공격에서 선두타자 강한울의 3루타와 신종길의 몸에 맞는 볼로 무사 1·3루. 노수광이 우익수 쪽으로 공을 보낸 뒤 3루까지 내달렸다. 2타점 3루타가 기록된 순간이다. 그리고 김주찬의 타구가 소문난 강건인 롯데 우익수 손아섭 앞으로 날아갔다. 짧은 타구였지만 노수광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공

보다 먼저 홈을 지나가며 9-1까지 점수를 벌였다. 승부에 마침표를 찍는 주루였다.

후회 없이 하고 가겠다던 노수광의 눈부신 활약이었다. 1군 등록 첫날부터 심상치 않던 노수광이었다. 첫 타석에서 첫 안타, 첫 도루, 첫 득점란을 모두 채웠던 노수광은 빠른 발을 활용한 내야안타를 이어가면서 눈길을 끌었다. 23일 롯데전에서는 시즌 첫 홈런이자 프로데뷔 홈런까지 터트렸다.

노수광은 “생각보다 빨리 기회가 왔다.

1군에 올라오면서 후회 없이 내 것을 자신 있게 해보고 가지고 마음 먹었다. 2군 코치님들도 준비한 대로 해보고 말씀해 주셨다. 해보고 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응원을 해주셨다. “주루는 자신 있다. 원래 발이 빠르기도 했지만 합평에서 하체 훈련을 하면서 더 발이 빨라진 것 같다. 내 장점을 활용해서 좋은 경기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틀 연속 KIA의 방망이가 불을 뿜으면서 선발로 등판했던 한기주와 지크

가 각각 승을 추가했다.

23일 선발로 나온 한기주는 5이닝 7피안타(1피홈런) 4볼넷 3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지만 타선의 도움 속에 1668일만의 선발승이라는 감격을 누렸다. 한기주는 15일 넥센전에서는 1401일 만에 세이브, 12일 SK전에서는 1462일 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지크는 7이닝 5피안타(2피홈런) 1볼넷 8탈삼진 2실점의 호투로 3연패 뒤 2연승에 성공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4일 사직경기

| | | |
|------------|--------------|----|
| KIA (2승1패) | 4 20 311 000 | 11 |
| 롯데 (1승2패) | 0 01 010 011 | 4 |

▲승리투수:지크 (2승3패·KIA) ▲패전투수:린드블럼(1승3패·롯데) ▲홈런:이범호(3호·1회 3점)·신종길(1호·2회 1점·이상 KIA), 문규현(1호·5회1점)·아두치(2호·8회1점·이상 롯데)

강정호, 첫 안타 담장 넘어갈 뻔

트리플A 재할 경기서

급격한 방향 전환도 이상無

피츠버그 파이리츠 내야수 강정호(29)가 재할 경기 출전 4경기 만에 첫 번째 안타를 신고했다.

강정호는 24일 트리플A 경기 인디애나 폴리스와 루이빌 베츠전에 3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삼진 1개를 기록했다. 트리플A 출전 4경기 만에 나온 첫 안타로, 강정호의 타율은 0.067(15타수 1안타)이 됐다.

1회 내야 땅볼, 4회 삼진 아웃으로 물러난 강정호는 6회 선두 타자로 나와 왼쪽 담을 때리는 큼지막한 공을 쳤다. 강정호는 1루를 돌아 2루로 향했지만, 상대 좌익수 제시 원커가 정확한 펜스 플레이로 2루에 송구하자 황급히 1루로 귀루했다. 이 과정에서 강정호는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수술을 받은 무릎이 괜찮다는 걸 과시했다. 강정호는 8회 2사 1루 마지막 타석에서 날카로운 내야 땅볼을 쳤지만, 상대 호수비에 걸려 아웃됐다.

경기는 강정호가 속한 인디애나폴리스가 1-0으로 이겼다.

강정호는 첫 안타와 과격한 주루를 선보였고, 3경기 연속 9이닝 소화로 메이저리그 복귀 ‘초읽기’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ML 첫 타점

김현수 멀티안타 활약

볼티모어 오리올스 외야수 김현수(28)가 미국프로야구 첫 타점과 2안타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김현수는 24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 9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다. 지난 14일 보스턴 레드삭스전 이후 열을 만이자 8경기만의 선발 출전이며, 경기 출전은 15일 텍사스 레인저스전 이후 7경기 만이다.

1-0으로 앞선 2회초 2사 1·2루에서 첫 타석에 등장한 김현수는 상대 선발 오른손 투수 크리스 메들렌의 조구 몸쪽 시속 147km 직구를 가볍게 때려 중견수 앞에 살짝 떨어뜨리며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4경기 만에 첫 타점을 신고했다. 이후 삼진과 1루수 앞 땅볼로 물러났던 김현수는 8회초 멀티히트(1경기 2안타 이상)를 완성했다. 1루수 쪽 강한 땅볼을 날렸고, 캔자스시티 1루수 에릭 호스머가 몸을 날렸지만 끝낼때 내야 안타가 됐다.

이날 4타수 2안타를 기록한 김현수는 메이저리그 타율 0.500(10타수 5안타)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박성현 KLPGA 독주 체비

넥센 마스터즈 우승

시즌 출전 3개 대회 싹쓸이

‘장타여왕’ 박성현(23·넥스)이 한국어 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독주 체비를 갖췄다.

박성현은 24일 경남 김해 가야골프장 신어·낙동 코스(파72·6856야드)에서 열린 KLPGA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쳐 3라운드 합계 8언더파 208타로 김민선(21·CJ오쇼핑)과 조정민(22·문영그룹)을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KLPGA투어에서 시즌 3승과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달성한 박성현은 이번 시즌에 출전한 3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승률 100%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냈다. 우승 상금 1억원을 받은 박성현은 시즌 상금 3억8952만원으로 상금 랭킹,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 등에서 선두를 질주했다.

작년에 KLPGA투어를 휩쓴 전인지(22·하이트진로)가 빠지면서 독주가 예상됐지만, 박성현의 상승세는 예상을 뛰어넘어 ‘절대 지존’으로 자리 잡을 태세다. 지난해 3승을 거둔 박성현은 시즌 초반에 벌써 3승을 올려 작년 전인지의 시즌 5승은 물론 2014년 김효주(21·롯데)가 세운 시즌 6승 기록 경신도 사정권에 됐다. KLPGA 투어 시즌 최다승 기록은 2007년 신지애(28)의 9승이다.



상금 획득 추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28개 대회에서 7억3669만원을 번 박성현은 올해는 불과 3개 대회에서 4억원에 가까운 상금을 쓸어담았다. 김효주가 2014년에 세운 시즌 최다 상금 12억890만원에 뛰어넘을 수 있을 지도 관심사가 됐다.

박성현은 “연속 우승을 꼭 해보고 싶었기에 지난 대회 우승보다 더 기쁘다. 승률 100%를 이어가게 된 것도 뿌듯하다”며 “생각보다 빨리 3승을 했지만 언제 4번째 우승이 나올 지 모르니 목표 조정을 그때 가서 하겠다”고 말했다. “남과 달라야 성공한다”는 좌우명으로 캐디백에 ‘남달라’를 새겨넣은 박성현은 이날 샷과 퍼팅이 흔들렸지만 남다른 위기 관리 능력으로 우승까지 내달렸다.

/연합뉴스